가산점으로 정시모집 역전 노려라

수리 가형, 2%서 최고 35%까지 부여

'숨어있는 점수'…잘 활용땐 당락 바꿔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많은 가채점 원점수 성적에 낙담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그러나 원점수는 정시모집과 사실상 무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 대학마다 정시에서 반영하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다르고 영역별 반영비율과 가산점 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험생이 눈 여겨볼 부분은 가산점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특정 영역에 가중치를 둬 선발하기 때문이다.

◇영역별 가산점 따져야=대학이 수리 가형 또는 사탐, 과탐 등 특정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다. 특정 영역의 점수가 좋은 수험생이라면 가산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점수대 별로 차이는 있으나 표준점수 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은 수리 나형에 응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문에 수리와 과탐의 반영비를 지정하지 않은 일부 대학 자연계열 학과에는 인문계 출신 합격자가 60%에 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의 경우 수리 가형이나 과학탐구에, 그 밖의 대학에서는 수험생에게 특정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가산점을 주고 있다. 수리 가형과 나형, 사탐과 과탐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당 모집단위의 반영비율과 가산점 부여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2011학년도 정시(자연계)수리가형 가산점 부여 대학

지역	대학
서울	가톨릭대(5%), 광운대(10%), 국민대(10%), 덕성여대(10%), 동덕여대(12%), 삼육대(10%), 상명대(서울)(5/10%), 성공회대(10%), 성신여대(5%), 세종대(10%), 숭실대(8%)
광주·전남	대불대(수교 10%), 동신대(5%), 목포대(10%), 목포해양대(5%), 순천대(5%), 전남대(20%), 조선대(15%), 한려대(10%)
전북	건동대(3점), 군산대(10%), 예수대(10%), 우석대(수교), 전북대(10%), 전주대(10%)

〈12.1일 모집요강 기준〉

◇수리 가, 나형 표준점수 차 커=올해 정시에서는 대다수 대학이 수리 가형에 5~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이나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하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수리 가형에 최저 2%에서 많게는 3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수리 가형에 10% 이상,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표준점수 반영 대학보다 더 높은 가산점을 부여했을 때 수리 가형 응시생의 불리함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등급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수리 가형과 나형의 표준점수 차이가 7~8점이나 돼 수리 가형의 가산점 효과가 지난해보다 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나다.

진학사 김희동 입시분석실장은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리 가형이나 과탐을 필수로 지정하기도 하므로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인문계 학생들의 교차지원 기회가 확대됐지만 1점으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으므로 가산점을 고려한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조리영양학부 학생들

전국 조리경연대회 대상 휩쓸어

호남대 조리영양학부 학생들이 전국 단위 각종 조리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휩쓸며 발군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조리영양학부 김형천(2년)와 김새영(1년) 학생은 지난달 전남도가 주최하고 장흥군과 한방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정남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상장을 받았다. 이번 수상작은 한방떡갈비 외 4작품 (키조개 샐러드, 표고버섯 콘소메, 마를 이용한 홍어무침, 매생이 무스)으로 지역특산품을 식자재를 활용했다.

이에 앞서 충북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서 열린 '2010 전국 향토, 한방음식경연대회'에서는 조리영양학부 김형천(2년)·양시원(2년) 학생이 대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두 학생은 약선오골계흑미탕 외 2작품을 출품해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또 조리영양학부 이명희(2년) 학생은 '제 17회 세계김치문화축제, 어딤채 레시피 공모전'에서 '갈치식혜 배추김치'로 동상을 수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미용과학과 장관상 수상

제1회 뷰티인의 밤 행사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 미용과학과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2010 뷰티산업원년, 제1회 뷰티인의 밤' 행사에서 전국 4년제 대학교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제1회 뷰티인의 밤'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10년을 뷰티서비스 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아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평가한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 광주여대는 국내최초로 4년제 대학에 미용분야 학과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개설, 미용인재 양성과 뷰티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보석공학과 작품 전시회 동신대 보석공학과 학생들은 1~2일 이틀 동안 대학 도서관 문화박물관 전시실에서 제12회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동신대 제공〉

광주·전남 대학탐방 ❺ 조선대 디자인공학과

디자인·전자·경영학 융합 광산업 멀티플레이어 양성

조선대학교(총장 전호종)가 광주의 주력산업인 광산업을 선도할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자인과 광기술·전자공학·경영학을 융합한 '디자인공학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조선대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단'(단장 이진렬)은 미술대학 내에 디자인공학과를 신설, 2011학년도에 첫 신입생 35명을 모집한다.

융합형 디자인교육을 통해 차세대 디자이너 육성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공학과는 디자인·경영·전자공학·광기술공학 분야를 융합하는 커리큘럼으로 광주의 주력산업인 광산업 분야의 특화된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미래의 핵심기술인 전자공학·광기술·경영학을 새로운 형태로 융합하여 미래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핵심디자인인력을 배출한다.

단순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제품의 원리에 대한 기술과 마케팅 등 통합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원하는 멀티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디자인공학과는 학부(4년제) 혹은 학부-대학원 연계(5년제)를 선택하는 5년제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융합형 디자인교육이란 '월드베스트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디자인 관련 연계 학문분야의 전공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통합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차세대디자이너를 육성하는 신개념 디자인교육모델이다.

이러한 융합형 교육 모델은 차세대 디자인거점대학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전국 공모를 거쳐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조선대 '융합형디자인대학 육성사업단'은 2010년 동안 15억원을 지원받아 이번에 국비지원학과인 디자인공학과를 신설했다.

조선대 디자인공학과는 융합형 교육, 산학연계 실무교육, 국제화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능력 있는 차세대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한다.

융합형교육은 디자인학 50%, 경영학 10%, 전자공학 10%, 광기술공학 10%, 그리고 이 4가지 분야의 융합교과 20%로 구성된다. 즉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디지털 컨텐츠 디자인을 기반으로 이와 관련된 공학교육, 경영교육이 융합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뒷받침할 해외연수, 국제공모전참여,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기존의 강의실 교육에서 탈피해 선진화된 교육을 국비지원으로 추진한다.

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디자인공학과는 학부 4년제 혹은 학부-대학원연계 5년제(학부 3.5년, 대학원 1.5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학생이 원할 경우 4학년 2학기 때 대학원에 진학해 1년 6개월에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제품디자이너, 멀티미디어콘텐츠디자이너, 디지털콘텐츠디자이너, 디자인매니저, 디자인마케터 등으로 활동하며 주로 대기업 디자인부서, 전문디자인회사, 디자인진흥기관, 디자인연구소에 진출하거나 직접 디자인

융합형 디자인대학 선정 국비 지원 받아 신설

올 첫 신입생 35명 선발…산학연계 실무 교육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디자인공학과'는 기존의 디자인 분야에 전자공학·광기술·경영학 등을 융합한 새로운 학과로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술대학 회화과 학생들의 수업 모습.

산학연계 실무교육은 3학년 2학기부터 학생 전원이 산업체와 디자인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현장실습과 산학 인턴십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겸비해 졸업 후 바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다.

국제화교육은 1주일에 15시간(1일 3시간) 원어민 영어교육프로그램인 ESL프로그램(조선대 집중영어교육프로그램)을 학과 학생 전원에게 무료로 지원하며, 각종 국제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지원 및 국제화연

회사를 창업할 수 있다.

이진렬 융합형디자인대학 육성사업단장(미술대학 디자인학부)은 "조선대 디자인공학과는 세계 최초의 디자인+경영+전자공학+광기술학 융합학과로 주목받고 있다"며 "미래 디자인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산학협력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5년제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 광산업 산학협력 실무교육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차세대디자이너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